

깨끗한 환경과 철저한 기록이 경쟁력이다

미성농장 장장길 사장은 지난 2년 여간 우리 협회 공주지부 총무를 역임하면서, 김광의 지부장과 함께 충남 공주지부를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지부중의 하나로 단기간에 키워 낸 장본인이다. 농장 또한 전국에서 가장 주위 환경이 깨끗하고 성적이 우수한 농장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미성농장을 직접 찾아가 친환경 양돈장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어떤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 취재 조진현 -



▲ 우로부터 장장길 사장, 오춘화 농장장, 박정숙 실장, 봉성철 과장 내외

우리 양돈산업은 70년, 80년대의 양적 성장을 지나, 90년대 이후부터 질적 성장의 단계를 맞고 있다. 사육두수 또한 2000년도 이후 900만두를 중심으로 유지되면서 전업 양돈업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축산업, 특히 우리 양돈업의 가장 큰 흐름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친환경 축산’이다. 소비자의 요구와 분뇨처리 문제, 식육의 안전성문제가 강조되면서 정부 또한 축산업 등록제와 친환경 직불제 등 직접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충남 공주 미성농장은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우수한 농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깨끗한 농장 주변 조경과 환경, 청결하고 냄새없는 돈사, 분뇨의 깔끔한 재활용 처리 등은 친환경 양돈장의 모범적인 모습이다. 또한 동시에 최상위 수준의 성적을 내고, 철저한 기록과 보존으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양돈장의 위험성(리스크)까지 최소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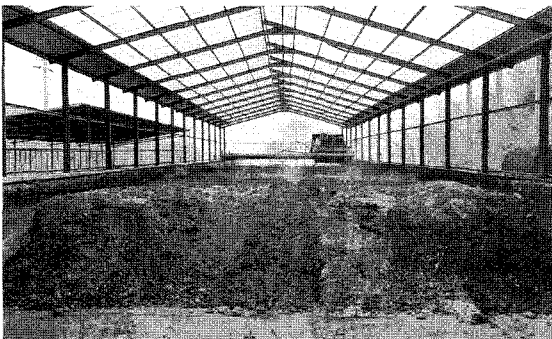
깨끗한 환경

모든 260두, 약 3,000두 규모의 미성농장(장장길 사장)은 공주시 계룡면 향지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장길 사장과 여성 농장장인 오춘화 농장장을 포함한 3명의 직원이 양돈장을 꾸려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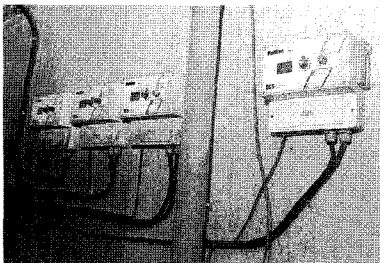
분뇨처리는 최신식 시설을 갖춘 톱밥 퇴비장(에스컬레이트식 교반기)을 가지고 퇴비업체에 용역을 맡겨 처리하고 있으며, 노 저장조를 따로 두어 공공처리장으로 운송하여 처리하고 있다. 퇴비장(사진 1)과 저장조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주변의 조경 또한 뛰어나다.

미성농장은 후보돈사 1동, 임신사 2동, 분만사 1동, 자돈사 2동, 육성사 3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 돈사를 뺀 모든 돈사가 스크레파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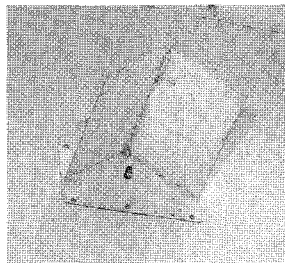
미성농장의 스크레파 돈사는 배열이 우수하여 분뇨처리에 인력이 적게 소요되는 좋은 구조로 되어 있으며,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어 돈사 내에서 낮잠을 잘 수 있을 정도다. 농장 바닥은 항상 촉촉하게 유지되고 있어 너무 건조하지 않으며, 특히 충분한 환기시설을 가지고 계절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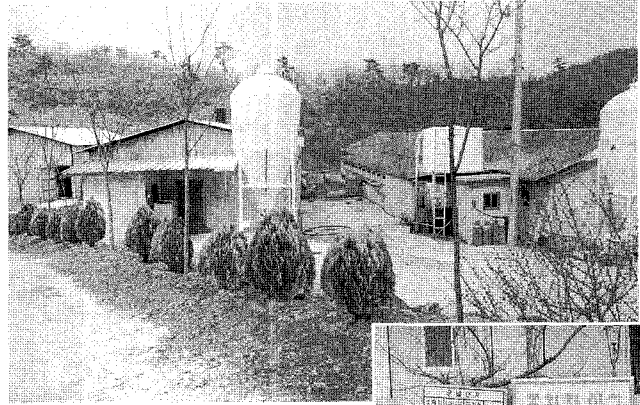
〈사진 1〉 스크레파 돈사인 미성농장은 분을 퇴비업체에 용역을 주어 처리하고 있다.



〈사진 2〉 돈사 내부에 설치된 온도계. 좌측 3개가 내부온도, 우측 1개가 외부온도 측정기



〈사진 3〉 외부 온도계



〈사진 4〉 미성농장의 돈사 외부. 조경이 우수하며 바닥은 자갈이 깔려 있다.



〈사진 5〉 농장입구에 방문자를 위한 별도 주차장 안내가 있다.

운영하고 있어 돈사내의 온도와 습도관리가 우수하게 유지되고 있다.

장장길 사장은 이와 함께 〈사진 2〉, 〈사진 3〉과 같이 돈사 내부온도와 함께 외부온도도 함께 측정하여 돈사 내의 일교차를 최대한 줄여주고 있다. 이러한 온도관리는 돼지의 계절적인 스트레스를 최소화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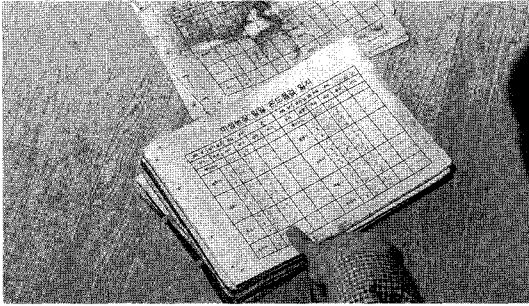
돈사 외부도 〈사진 4〉와 같이 양돈장 주변의 차단 조경은 물론, 돈사 주변, 직원들 숙소, 퇴비사 주변 등에 충분한 조경이 이루어져 일하는 직원들이나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깨끗한 느낌을 주고 있다.

그러나, 미성농장은 결코 많은 시설비를 투입하여 얼마 전에 신축한 새로운 축사가 아니다. 벌써 15년이 된 축사들이다. 하지만 어느 양돈장보다 내외부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철저한 기록으로 리스크 잡는다

미성농장은 도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다소 질병 전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농장주변에 차단

농장취재 | 미성농장



〈사진 6〉 미성농장은 매일 내외부 온도, 날씨, 돼지상태 등을 기록하여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표〉 미성농장 돼지 출하성적
(2004년 여름)

날 짜	두 수	평균체중
6/23	31두	120kg
7/05	32두	116kg
7/20	30두	123kg
7/25	30두	124kg
7/30	30두	124kg
8/01	30두	125kg
8/18	32두	113kg
9/01	31두	116kg

*170일령 출하

여 전 직원이 방역복을 항상 착용하고 농장업무 보고 있으며, 분뇨처리 차량 또한 호스를 통해 농장 밖에서 집수조의 노를 퍼 갈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질병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있다. 실제 미성농장은 최근 PMWS, PED 등 소모성 질병의 피해를 거의 입지 않고 있다.

특히 미성농장은 기존 전산 기록관리는 물론, 매일 내·외부 온도, 날씨, 돼지 상태 등을 철저히 장부에 기록하여 체계있는 농장관리를 하고 있다.〈사진 6〉

농장 근무자들은 방역복 어깨 주머니에 볼펜을 꽂고 항상 기록하면서 일하는 것이 이미 습관되어 있다. 농장 내의 상황변화 기록은 농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경이 되어 있고 입구부터 〈사진 5〉와 같이 별도 주차장을 두어 출입자의 통행을 구분해 놓았다.

또한 보기 드물게 농장을 비롯하

초기에 찾아내어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심지어 10년이 넘게 모여진 이러한 기록들은 이제 현재의 계절과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언해 주기까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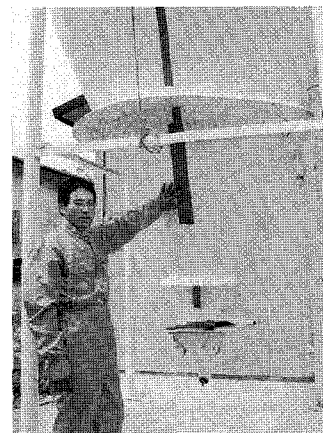
많은 기록은 자칫 농장 근무자들의 작업 효율을 떨어뜨릴 우려도 있다. 그러나 장장길 사장은 좋은 환경과 근무조건으로 농장 관리자들이 직접 힘을 쓰는 일을 줄이고 기록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외에도 미성농장은 만약 정전 사태가 발생했을 때 농장 전체에 벨이 울리도록 장치되어 있으며, 휴대폰으로도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돋보이는 여름철 관리

2005년 여름, 지난해에 이어 사상 최고의 폭염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미성농장의 여름철 성적관리는 특히 살펴볼 만 하다. 앞서 언급한 온도관리를 기본으로, 〈사진 7〉과 같이 사료빈과 물탱크에 항공도료로 알려져 있는 최첨단 단열제 인슐레드(Insuladd)를 도색하여 사료빈의 온도를 크게 줄였으며, 〈사진 8〉, 〈사진 9〉와 같이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고 겨울철, 여름철 사용량을 조정하고 있다. 〈사

진 8〉은 모든 4두마다 각각 설치되어 있는 송풍 모터(모든 귀에 바람을 불어



〈사진 7〉 사료빈과 물탱크에 여름철 온도상승을 막기 위해 인슐레드(Insuladd)로 도색했다.

좁)이며, <사진 9>는 돈사 뒤쪽에 설치되어 있는 초대형 환기팬이다. 1개의 환기팬만이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사 문을 개방하면 입구의 사람이 빨려 들어갈 정도이다.

장장길 사장은 “4계절의 구분이 명확한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한 환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며 “여름, 겨울 2개의 환기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개념으로 별도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 미성농장 분만사에서는 오전 5:30, 08:00, 10:00, 12:00, 오후 1:30, 3:00, 4:30, 8:00 총 8번에 걸쳐 사료가 급여되고 있다. 모든의 사료 급여량을 최대화하여 강건한 모돈을 만들고 아침, 저녁 서늘한 시간에 사료섭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실제 미성농장은 19일의 빠른 이유에도 불구하고 75~8kg의 평균 이유체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산자수 및 이유 자돈수 또한 매우 높다.

그리고 미성농장은 <사진 10>과 같이 돈사 벽면에 우레탄 처리를 하여 단열 효과를 극대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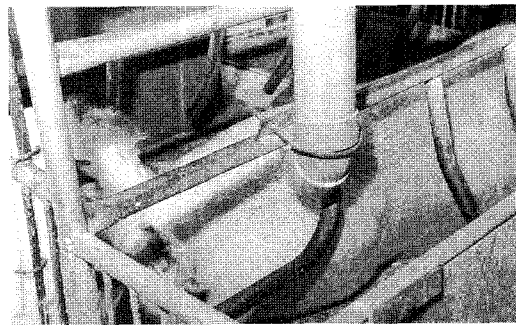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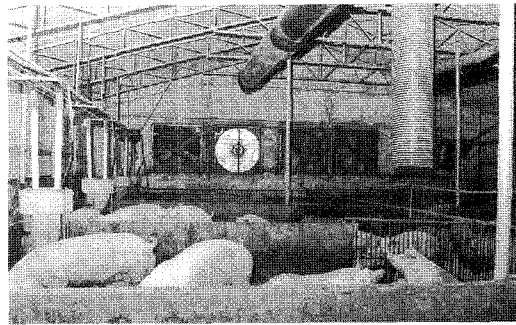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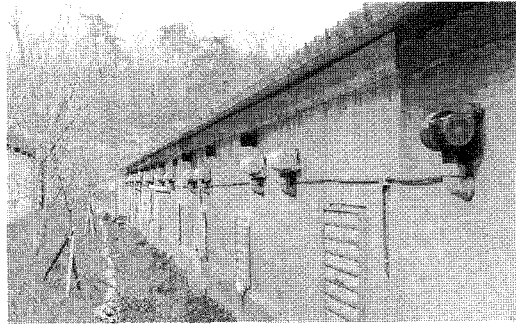
19일령 이유가 가능하다

- 직접 발효유 만들어 급여

현재 52세의 장장길 사장은 20여년의 양돈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나름대로 노하우와 기준을 가지고 양돈장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PMWS 등으로 인해 21일령의 출하 일령이 27~8일로 다시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미성농장은 19일에 자돈을 이유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유일령이 가능한 것은 앞서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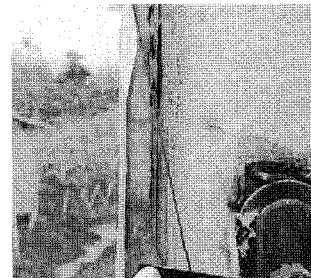
<사진 8> 모든 4두당 1개씩 설치된 소형 모터(모돈 귀에 바람을 불어줌). 현재는 비닐로 덮어 놓았다.

<사진 9> 돈사 뒤쪽에 설치되어 있는 초대형 팬. 4월 현재 현재 1개만 작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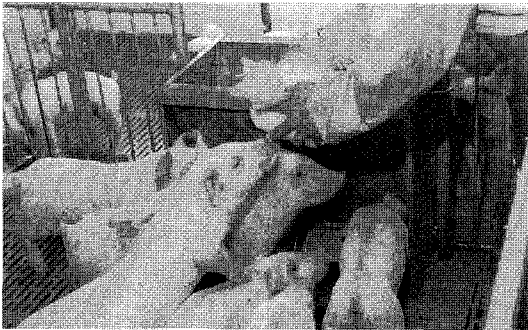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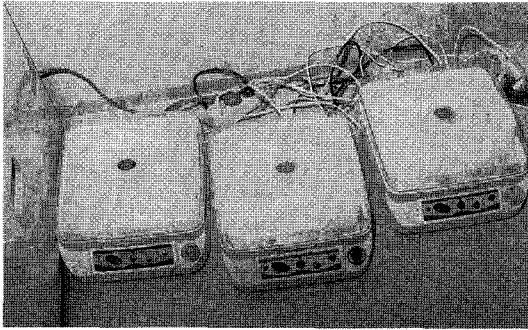
<사진 10> 모돈 귀쪽에 설치된 바람이 들어오는 파이프.

한 모돈 관리와 함께, 자돈에 대한 발효유 급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장장길 사장은 매일 아침 8시에 인근 낙농농가에서 생유를 가져온다. 2kg씩 한 봉지씩 묶여 있는 생유는 아침 식



<사진 10> 돈사 벽면은 우레탄 처리가 되어 있다.



<사진 11> 소독된 생유는 발효기에서 8시간 발효되어 자돈에게 급여된다.

<사진 12> 자돈 발효유 먹는 사진. 발효유는 자돈들의 기호성이 매우 높으며 설사를 방지하는 효과를 준다.

사 시간 중에 준비된 2개의 물통 속에서 60℃로 끓여 소독된다. 물론 온도계까지 준비되어 있다. 그 후 멸균기로 소독을 실시한 다음, <사진 11>의 발효기에서 8시간 동안 발효시켜 이유 후 2주 동안 자돈에게 하루 2번 급여하고 있다.

발효유는 자돈들의 기호성이 매우 높으며, 한 봉지씩 자돈 사료위에 급여되어 사료섭취 증가 효과까지 얻고 있다. 또 유산균 발효유는 장을 튼튼히 하고 설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최근 자돈 소모성 질병의 피해를 모르고 지내고 있다.

장 사장은 자돈에게 급여되는 발효유의 성분을 철저히 분석하여(남양유업 분석 의뢰) 가장 세균수가 낮고 유산균이 많은 시기에 급

미성농장 장장길 사장이 말하는 돼지를 잘 기르는 우선순위

1. 좋은 유전자를 가진 돼지를 확보하라
2. 돼지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시설(환경)을 확보하라
3. 돼지관리를 철저히 하라
4. 좋은 유전자에 맞는 충분한 영양소를 급여하라.
5.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라. 가장 우선은 방역이다.

여하는 과학적인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장장길 사장은 예방접종 만큼은 전 두 수 본인이 직접 실시하고 있다. 이는 철저한 접종과 돼지의 상태를 직접 손으로 만져보아야 한다는 장 사장의 신념 때문이다.

돼지를 만져볼 때 자부심을 느끼고, 돼지를 출하할 때 자긍심을 느낀다는 장 사장은 돼지를 키워내는데 이미 프로다. 돈사 내 튼실하게 자라나는 돼지들을 보여주는 장 사장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하다.

돼지를 돼지로 보지 말라.

장 사장은 예전 어떤 사람이 직접 발효유를 만들어 돼지에게 먹인다고 하니, “그럼 유통기한 다되어 반쯤되는 우유를 양돈장에 활용하면 좋겠다”고 조언을 해 준적이 있다고 한다.

장장길 사장은 이러한 것이 바로 돼지를 돼지로 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돼지를 돼지로 보지 말고 “인간” 또는 심지어 “나”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사람이 먹고, 사람이 생활한다는 생각으로 돼지를 키워 나간다면 양돈업에 성공하는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양돈**